

건축문화의 해에 있어서 BK21 선정의 의미

Meaning of BK21 Selection in the year of Architecture

정진원 / 교수,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원장

by Chung Jin-Won

이제 두달이 지나면 대망의 3천년기를 맞게 된다. 2000년은 제 삼천년기의 첫번째 해로써 거룩한 문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을 통하여 인류는 단지 한 세기가 아니라 한 천년기를 넘어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먼저 크게는 지난 10세기 동안, 작게는 지난 1세기 동안 우리 자신들에게 일어나던 일들을 분명히 의식하면서 이 길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들은 건축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통하여 과거의 과오와 불충한 사례들, 향구하지 못한 자세와 구태의 연한 행동에서부터 자신을 정화하도록 실천운동에 힘써야 할 것이다. 과거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자세를 강화하도록 도와주는 정직하고 용기있는 행동이다. 이러한 것은 오늘날의 유희와 도전에 직면하도록 우리를 각성시키고 이를 극복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건축반성의 해

올해는 건축문화의 해로써 이제 그 마무리가 얼마남지 않았다. 이어령교수는 99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특별강연에서 『1990년대초 본인이 문화부장관이었을 때 해마다 열악한 한국문화를 집중적으로 고무적이며 성장시킬 수는 없을까? 또한 서로 반성하고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는 없을까?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 —— 해이다.』라고 「——해」의 성격을 규정한 바 있다. 따라서 『99건축문화의 해』는 특히 20세기말 마지막 해에 열림에 따라서 앞서 필자가 말하고 이어령교수가 성격을 규정한 내용대로 『99건축반성의 해』로 시작하여 국민적인 공감대를 먼저 불러 일으켰었으면 어땠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아직도 국민들은 수백 수천의 폐죽음과 부상을 몰아온 95년의 삼풍 백화점 붕괴사고의 역사적 비극과 94년에 발생했던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그들의 뇌리에서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건축인들이 그때의 일들을 사죄하며 자성하는 실천적 운동은 국민

들에게 다시 한번 「건축은 사고(事故)이다」라고 하는 비극적인 생각을 불식시킬 수 있으리라고 보며, 우리 건축인들의 석고대좌하는 겸허한 자세는 어느 정도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는 것이다.

그런데 올해는 『99건축문화의 해』이면서도 아이러니컬하게도 각 매스컴에서는 우리 건축인들을 매우 질타하는 한해였다. 어떤 것은 너무 성급하고 심하지 않았는가 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반성하고 정리해야 하는 기회를 다시한번 갖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건축사 상호인정과 독자적 건축인증 교육

I.M.F이전 몇년전부터 유럽과 미국을 위시한 대규모 건축사절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건축설계시장을 공략해 온 이래 우리나라의 건축시장은 세계의 유명 건축가들에 의해 많이 설계되고 지어지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더군다나 지난 6월말에 개최된 UIA제2차 북경대회에서는 건축설계역역의 국제적 시장개방을 위해 건축전문직(건축사)의 상호인정기준을 마련하여 국내 건축사의 국제적기준 설계경기와 해외업무수주 등에 제한을 받게 되어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건축기류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선진국과 일본 중국에 비해서는 늦은감이 있지만 건축 3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기존의 배출 인력에 대한 경과조치, 추가교육 등의 대체 방안과, UIA건축교육인증에 대한 기존교육시스템을 분석 연구중에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그렇다고 우리의 것을 모두 저버리고 미국의 NCARB나 일본, 유럽 각국의 규정을 똑같이 모방하여 우리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한국만의 독창성이 없는 또 다른 외국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될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UIA나 미국 등의 외국기준도 수용하면서 우리나라의 장점과 독자성을 최대한 살리는 묘수의 기준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렇게 할 때만이 외국의 건축교육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우리만의 독특한 교육목적과 방법 및 프로그램을 갖는 건축 설계교육도 가능하리라고 보여지는 것이다.

BK21 선정의 의미

필자가 속한 경기대학교는 92년부터 학부건축교육에 실무 건축가를 중심으로 설계교육을 행하는 한국형 디자인 디렉터 시스템(Design Director System)을 운영한 이래,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95년도에 국내 최초의 건축대학원, 97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건축전문대학원으로 개편인가를 받았고, 건축문화의 해인 금년 8월말에는 정부의 BK21사업단(21C지식기반 사회대비 고등인력 사업의 디자인 특화 사업단)으로 선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지금까지 8년여동안 기존의 교수, 강사, 디렉터 및 비평가, 특강과 세미나 관계자들에게 우선 그 공을 돌려야 마땅하겠지만, 무엇보다 건축계의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 덕분에 건축계를 대표하여 선정된 것에 대해 큰 감사와 그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앞으로 BK21사업의 성공여부는 비단 경기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른 여러 분야와 경쟁하여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이 유일하게 건축분야에서 디자인 특화사업단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하는 99년부터 사업이 끝나는 마지막 해인 2004년까지의 5년 동안은 건축계의 설계업체와 함께 같은 배를 타며 실패 성공의 공동책임을 갖는 입장을 취하게 된것이다. 또한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은 정부가 BK21디자인 특화 사업단으로 선정한 공적인 위치에 있으므로 건축교육 인증시 모델 케이스로 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웬만한 교육 정보자료들은 공개되어 공유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한편 BK21사업의 예산 중 반은 정부 즉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설계 교육기관으로서 더욱 겸허한 자세로 반성하면서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실천운동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우리의 건축계는 국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해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의 BK21선정으로 새롭게 삼천년기를 맞는 한국 건축교육계의 저변에 새로운 기반 조성의 비전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건축인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와 격려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건축문화를 세계에 수출하며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당겨지리라고 보여진다.